

증권 IB 강화위해 PF-NCR규제개선... 해외진출 지원

〈프로젝트 파이낸싱〉 〈영업용순자본비율〉

나재철 금투협회장 신년간담회

PF규제완화 등 정부 건의 확대
IB역량 강화 NCR 등 제도개선
IFA·직판 등 판매채널 다변화
실제 수익 때 펀드과세 개편도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0 금융투자협회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나재철 금투협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단순히 반대하기 보다는 국민경제와 투자자 보호 차원을 고려한 ‘부동산 금융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나재철 금투협회장은 “부동산 직접투자를 간접투자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증권사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를 자기 자본 대비 100%로 제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내 기업금융(IB)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증권사의 불만이 커

지는 가운데 나 회장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나 회장은 “정부의 PF 규제는 결국 증권사 투자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 분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나온 것”이라며 “증권업계는 이미 지난해 중소·혁신기업에 대해 21조4000억원의 자

금을 공급하는 등 생산적 금융의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고,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에 증권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회장은 업권별로 중점 추진 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증권업계의 IB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레버리지 비율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 회장은 “모험자본의 추가적인 확대를 위해 해외의 건전성 규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NCR·레버리지비율 제도 개선방안과 증권사 건전성 규제 발전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증권사의 해외 진출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나 회장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관련 입법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외화증권 브로커리지 업무의 효율성과 제도 등을 점진·개선해 브로커리지 업무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자산운용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외화 표시 머니마켓펀드(MMF)와 기업성장

투자기구(BDC) 제도화 등 다양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다.

또 독립투자자문업(IFA) 확대가 펀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불완전판매 이슈의 해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 회장은 “IFA·직판·온라인 등 판매채널 다변화도 병행할 것”이라면서 “특히 IFA는 금투업계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전문성 갖고 회사 만들어서 역할을 해주면 은행도 상품판매에 수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방안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주식 거래세를 양도소득 과세체계로 전환하고, 금융투자 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 허용과 손실이월공제 도입 등이 주요 과제다.

특히 펀드과세와 관련해서는 “투자자별로 ‘투자한 전체 펀드에서 실제 수익’이 나는 경우에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금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등 ‘퇴직연금 제도 개선’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서는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옵션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나 회장은 “법 개정 지원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퇴직연금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의 자산이 자본시장을 통해 증식’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회원사들의 자율규제를 선제적으로 바꾸고 투자자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나 회장은 “고난도 금융상품과 관련한 영업행위 기준, 자금세탁방지 업무 지침 등을 마련하고, 내부통제 장치 표준안 마련을 추진하는 등 회원사의 내부통제지원을 위해 균형 잡힌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협회 테스크포스(TF)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TF는 1월 중 마무리하고 2월 중순에 결과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현재 금투협회 내부는 조직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나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혁신 TF를 구성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검단파라곤 센트럴파크’ 최고 24.69대 1

전 주택형 1순위 청약 마감
6725명 몰려 평균 8.64대 1



‘검단파라곤 센트럴파크’ 건보주택이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동양건설산업

올해 첫 분양단지로 관심을 모았던 동양건설산업과 라인건설의 ‘검단파라곤 센트럴파크’가 검단신도시 역대 최고 청약건수와 최고 24.69대 1, 평균 8.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동양건설산업과 라인건설이 검단신도시 AA2블록에 분양하는 ‘검단파라곤 센트럴파크’ 총 768가구(특별공급 청약분 354가구 제외) 모집에 6725명이 몰려 8.64대 1의 평균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84㎡ 단일면적, 두 가지 타입으로 구성된 ‘검단파라곤 센트럴파크’는 A타입이 333가구 모집에 4265명이 청약해 기타지역 최고 경쟁률 24.69대 1을 기록했고, B타입도 기타지역 최고

경쟁률 10.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단지는 오는 15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28~30일 3일간 정당계약이 진행된다.

검단신도시 AA2블록에 짓는 ‘검단파라곤 센트럴파크’는 지하 2층~지상 25층 12개동 1122가구 규모다. 단지는 2024년 개통 예정된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 신설역이 620m 거리에 있고, 영어마을과 유·초·중·고교가 바로 접해 있다.

검단파라곤 센트럴파크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1247만원으로 계약금은 10%(5%+5% 분납)며, 중도금(60%) 대출은 이자후불제 혜택을 제공한다.

/정연우 기자 ywj964@

LH, 고양 삼성리츠 우선주 일반 공모

총발행 560만주의 30% 168만주
목표수익 연 5.2% 비상장 우선주



블록형 단독주택 ‘삼송자이더빌리지’ 조감도.

LH는 국민 누구나 투자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이하 ‘리츠’)의 우선주에 대한 일반공모를 실시한다.

9일 LH에 따르면 이번에 공모하는 주식은 LH가 자산관리를 맡고 있는 (주) 고양삼송자이더빌리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고양삼송리츠’) 총발행주식 560만주의 30%인 168만주(84억원)다.

목표수익 연 5.2%를 제공하는 비상장 우선주이며 시공사의 책임준공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LH 매입확약 등 신용이 보장된 구조로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공모대상인 고양삼송리츠는 지난 2018년 GS건설과 케이프투자증권 컨소시엄이 민간공모사업자로 선정돼 고양삼송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오금동 일

원에서 블록형 단독주택 ‘삼송자이더빌리지(전용 84㎡, 432가구)’를 건설하고 있다.

공모 일정은 오는 10일 청약안내 공고로 시작으로 15~17일 청약접수, 21일에 주식배정 결과를 공고하며, 자세한 내용은 10일 이후 (주)케이프투자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LH는 ‘이번 고양삼송리츠 우선주 일반공모 외에도 지속적으로 공모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내달부터 한국감정원서 주택청약 접수

주택법 개정안 법제사법위 통과

다음달부터 주택 청약 업무를 금융결제원이 아닌 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오후 본회의를 거쳐 정부 이송(7일), 국무회의 의결과 관보 고시(의결 후 7일) 등의 절차를 거치면 이달 하순께 개정안이 공포, 시행된다.

국토부는 현재 국회 등과 관련 절차를 단축해 가급적 시행일을 앞당기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9·13대책에서 청약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청약 부적격자 양산을 막기 위해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에서의 청약업무를 이관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주택법 개정안 발의가 지난해 5월에 이뤄진 데다 그마저 국회 공전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면서 당초 지난해 10월로 예정했던 청약업무 이관 시기를 올해 2월로 연기하기도 했다.

여야 대치 속에 지난해 초 국토교통위원회를 천신만고 끝에 통과한 후에도 한 달이 넘도록 법사위가 열리지 않아 연초 분양을 앞둔 8만여가구의 아파트 분양이 파행을 겪는 게 아니냐는 우려

도 나왔으나 이날 법안 통과로 정상 가동이 가능해졌다.

이달 하순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감정원은 예정대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고, 모의 테스트를 거친 뒤 청약통장 가입 여부, 청약 순위 확인 등의 금융업무까지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금융실명제법으로 보호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비금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은행들로 부터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취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 통과가 지연됐지만 개인정보 이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오랜 기간 준비를 해온 만큼 감정원이 2월부터 청약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비대면계좌 개설하면 코스피 주식 쏜다

KTB투자증권, 새해 첫 이벤트
KOSPI 200 국내주식 1주 증정

KTB투자증권은 2020년 첫 이벤트로 3월 말까지 비대면계좌를 개설한 신규고객과 휴면고객을 대상으로 코스피 200(KOSPI200) 주식 1주를 모두에게 증정한다. 증정하는 종목은 5000원 이상 1만원 이하 종목 중 하나다.

최초 신규로 비대면주식계좌를 개설하는 고객과 휴면고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빙고스마트’를 검색해 MTS(모바

일 트레이딩 서비스)를 설치하면 비대면계좌를 쉽게 개설할 수 있다. 비대면계좌 개설 후 이벤트 신청이 가능하며,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 모두가 우량기업의 주주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KTB스마트클럽’ 가입고객은 신용대출 이자율 연 3.99%(최장 3년), 온라인 주식위탁수수료 1년간 면제(유관기관 제비용 제외), 전문가 주식추천 서비스, 세무상담, 상조물품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손영지 기자